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답변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양선원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낸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건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은 묻는 이에게> 담당자 양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양음 선원 ● FAX: (031)470-3116

길을 묻는 이에게



현대불교 제 370호
서기 2002년 5월 22일 수요일 27

법공양 페이지

한마음 넓게 써 세세생생 자유인 되라

여러분께서 차원이 높게 정신계를 밟아 가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한 마음입니다. 정말 이 세상의 만물 만생이 다 돌이 아니어서, 여러분이 안 계셨더라면 내가 배울 점이 없었고, 또 내가 없었더라면 여러분이 배울 점이 없었을 겁니다. 서로가 한마음 한뜻이 돼서 머무름이 없이 일체 만법을 행하는 도리를 정신 차려서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오늘 더 더욱 감사하군요.

심한 말을 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사형선고를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사형선고에다가 무기 집행유예를 받고 한 계단 한 계단씩 조심스럽게 마지막 계단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신다면 아마 더 잘 알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마음공부를 하는데 망상이나 졸음, 이런 결로 인해서 공부를 못 한다고 합니다. 둘로 보는 까닭에 못 하는 것이 둘로 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것을 망상이라고 보겠으며, 졸음이 와서 공부를 못 한다고 하겠습니까? 일하느라고 못 한다, 졸려서 못 한다, 바빠서 못 한다, 망상 때문에 못 한다, 이런 문제들에 여러분이 매이신다면 영 그 자리를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한테 누누이 말씀드려 왔습니다. 다가는 나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육조 스님의 '불성인 주인공이 청정함을 어찌 알았으리까.' 하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공으로 인해서 여여함을 어찌 알았으리까.' '불성'이라는 것은, 즉 말하자면 불이 들어오는 것을 말하고, '주인공'이라는 것은 불이 들어오게끔 전체가 작용되도록 한마음으로 뒷받침하는 겁니다. 그렇게 같이 돌아가는 것을 '주인공'이라고 합니다. 즉 말하자면, 영원한 생명의 근본과 마음내는 거와 육신이 움직여가는 것을 포함해서 주인공이라고 하고, 그대로 한마음으로 딱 주장을 세운 것이 바로 근본 불성입니다. 그러니까 둘러치나 메치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모든 일체를 갖추어 가지고 있음은 어찌 알았으리까, 주인공으로 인해서 일체 만법을 들이고 뉘어 어찌 알았으리까.' 이겁니다. 또 거기다 말을 한마디 더 붙이자면 '주인공으로 인해서 자유자재함을 어찌 알았으리까.' 하는 겁니다.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고 새겨 보신다면 모든 행이, 일체가 다 머무르는 바 없이 머무르는 겁니다.

아까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간다고 그랬죠? 그 길이 깊은 정글이라고 합니다. 지금 깊은 정글을 지나가는데 거기는 사자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또 스치기만 하면 말아서 피를 빼는 풀들이나 나무들이 다 있다고 봅시다. 그런데 그 정글을 지나가야 대로(大路)가 나오는데 정글을 가는 길에 무슨 잡담이 필요하고, 정신을 어디다가 팔 수 있겠습니까? 오로지 나아가면서 어떠한 게 딱한 하더라도 그냥 타파하고 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망상이나 할지라도 공부할 수 있는 재료라고 생각하고, 시공을 초월해서 볼 때에 잠이 온다 하더라도 잠자는 게 잠자는 게 아니라는 얘깁니다. 잠안 자는 것도 아니고 자는 것도 아닙니다. 꿈도 아니고, 생지도 아니듯이 말입니다. 이렇게 여려한 생활 자체가 그대로 진리요, 참선이요, 부처님 법입니다. 부처님 법이라고 해서 우리들의 법이 다르고 부처님의 법이 다르다고 생각지는 마세요. 우리들이 즉 부처이자 중생이니까요. 그러니 3천 년 전에만 부처님 이 계셨던 게 아니라 여러분이 계신 한 부처님은 항상 이 자리에 계십니다. 어떠한 망상이든 어떠한 애고든, 어떠한 병고든 어떠한 문제가 닦혀온다, 내 생명이 지금 위태롭게 되었다 하더라도 자기 몸뚱이가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끄달려서는 안 됩니다.

텔레비전 몸체와 화면 같은 외형은 어떻게 자기라고 하겠습니까? 마음에 갖추어 가지고 있는 그 능력, 바로 심력이 여러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형성시켜서 이년까지 끌고 온 그 근본인 불성이 바로 '주인공'입니다. 육신이 없어도 아니 되고, 육신을 나라고

해도 아니 됩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으로 비유한다면, 속의 기능이 없어도 안 되고 화면이 나오는 몸체가 없어도 텔레비전의 역할을 다 못 합니다. 알이 먼져나, 닭이 먼져나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먼져고 나중이고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공부 하는 데는 절대로 끄달려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왜 끄달린다는 말이 거기 들어갈까? 지금 세상을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물질이 없어도 아니 되고 물질만 있어

여러분은 자기가 살면서도 자기를

이 아닙니다. 수십 억의 중생들이 내 몸 속에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한눈 팔 사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고 신경을 쓰고 모질음을 쓰면서 '아이고, 이걸 끊어뜨리지 않고 해야 하는데, 공부를 어떻게 할까?' 이런 걱정 근심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본래 생활이 종교이고 참선이 기 때문에 그대로 자기 주인공 자리에서 일체 만법을 들이고 낸다는 사실을 진짜로 믿는다면 열쇠가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기가 살면서도 자기를

다구요. 그렇게 말씀드렸죠? 부처님 법이라고 생각하면 틀이 되죠? 그러나 부처님 법이 따로 없이 우리들의 법이 부처님 법이라고 놓을 때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노예가 되면 세세생생에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자옥이나 천당이 달린 것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제일 무서운 것은, 돼지같이 살면 돼지의 모습을 가지고 나올 것이고, 뱀같이 살면 뱀 모습을 가지고 나올 것이고, 개같이 살면 개의 모습을 가지고 나올 것이고, 사람같이 살면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마음 공부를 증득해서 넘어갈 수 있다면 삼천대천세계를 한 손가락에 꿰고서 굴릴 수 있는 그런 자유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살얼음판 같은 계단을 걸어가는 도중에, 정글을 지나는 도중에, 공부하는 과정을 정글이라고 하고, 사람이 태어나서 죽으러 가는 길을 한 계단 한 계단 감는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슨 사단이 그렇게 많아서 그 길을 똑바로 걸지 못하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지금 현실에 나오는 건데 그것을 대처하려면 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나오게 한 거니까 내가 안 나오게 할 수도 있잖아.' 하고 돌려놓는 것입니다. 마음은 내가 마음을 쓰는 대로 알고 있습니다. 지구가 움직일 때 우리가 그냥 따를 뿐이지 어디로 다니는 줄 우리가 압니까? 무엇을 하고 다니는 줄 압니까? 그렇듯이 이 몸뚱이 속에 있는 모든 생명의 의식들이 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돌아다니는지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거기가 직결해서 '내가 하는 일이지가 내가 잘해야 되잖아. 이골이 가야 되잖아. 네 몸뚱이 내가 건강하게 이끌어 가야 네 심부름을 잘하잖아.' 하고 그대로 놓는 것이 바로 참선이며, 우주를 한꺼번에 집어먹고, 집어먹을 것도 없이, 버릴 것도 없이 받칠 수 있는 그런 기풍이 된다 이 소립니다.

공부를 해서 '해인(海印)의 증명을 받았다.' 하는 것은 큰 바다에 만물만생이 살고 있는데 그 마음이 한마음이 됐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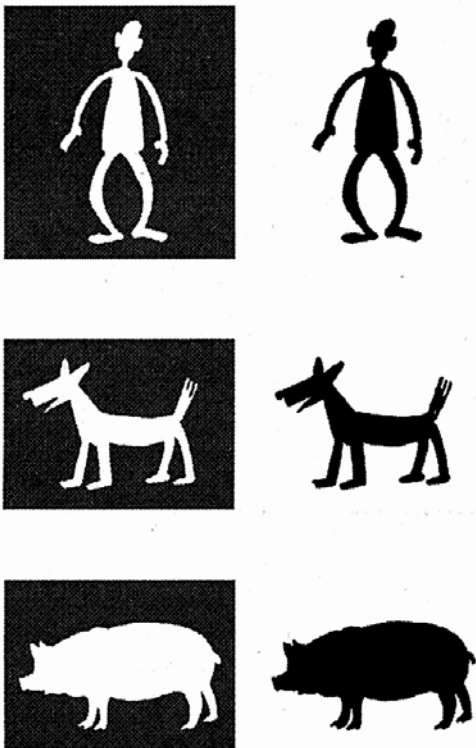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도 아니 됩니다. 생명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마음이 있고, 마음이 있기 때문에 바로 물질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죽은 영혼들도 연결을 짓고 돌아가는 데는, 한마음으로서 공심으로 돌아가려는 데는 바로 물질을 필요로 합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인간 마음의 그 무한한 레이저 광선, 마음의 레이저 광선은 무한하지만 물질적인 레이저 광선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레이저 광선이 지금 세계적으로 안 쓰이는 데가 없죠. 하다 못해 라디오까지도 말

못 믿어요. 다른 이름을 받고 형상을 받고 허공을 믿으면서도 왜 자기는 못 믿습니까? 못났든 잘났든 자기를 끌고 가는 자기를 자기가 왜 못 믿습니까? 배가 고프면 밥 먹게 하는 놈, 듣게 하는 놈, 보게 하는 놈, 말하게 하는 놈, 일을 하게 하는 놈, 하기 싫게 하는 놈, 싸움을 하게 하는 놈, 성이 나게 하는 놈, 이것들이 전부 한 놈이 하는 겁니다. 그거를 표현하기를, '아버지가 될 때 나라고 할 수 있나, 남편이 됐을 때 나라고 할 수 있나, 자식이 됐을 때 나라고 할 수 있나, 사위가 됐을 때 나라고

일체만물 서로 공생·공용·공식화 인욕·보시는 함·머무름 없이 해야

은총 끄달리면서 이것 때문에 죽는다고 피하고, 사자가 온다고 피하고, 어떤 풀이 몸을 감으면 또 안 감기려고 피하고, 이렇게 피하다 보니까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어떤 게 닦혀도 피하지 말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가도 아니 되고 뒤로 물러서도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돌이 아닌 까닭을 알면 한 찰나에 내가 풀이 될 수 있어서 어떠한 물체가 있다 할지라도 자기 피를 자기가 먹을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견 마음의 장난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풀도, 무정량도 식물도 다 마음이 있는 겁니다. 생시에 내가 '마음이 체가 없어서 너와 내가 돌이 아니게 돌아가는데 뭘 그래!' 하고 낫을 때에 바로 공묘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꿈과 생시가 돌이 아닌 까닭입니다. 그러니까 뱀이 닦히든지 또는 구렁이가 닦히든지 사자가 닦히든지 공생하게 피하지 말고, 가정에서 어떠한 애고가 닦히든 병고도 닦혀도 돌로 보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몸 속에 들은 의식들이 다 떼 떼 있는 겁니까? 내 한 물체 속에 들어 있는 겁니까. 그

중거입니다. 바다에는 도장을 찍어도 찍은 사이가 없고, 찍을 사이가 없건만 도장은 겁니다.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몽땅 '당신이 옳소.' 하고 찍는 거와 같죠. 왜냐? '옳소.' 하는 거는 돌로 봐서 옳소가 아닙니다. 너와 내가 돌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과거고 현재고 미래고 몽땅 한데 합쳐 한자리를 파악한 것이 바로 해인입니다. 한 가족 안에 아들 딸들이 전부 아버지를 찍지 누굴 찍습니까? 우주 전체 삼라만상을 한 가족으로 본다면 그렇게 아버지는 아들들, 아들은 아버지를 돌로 보지 않고 한 가족으로 보기 때문에, 모습은 다르지만 그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이라는 것은 조건 없는 자비가 줄줄줄 그냥 흐르고 있으니까, 그대로 합일이니까 도장이요, 허허허. 그러니까 너와 나를 가른다, 잘못하고 잘하는 걸 가른다면 합일이 될 수 없죠. 잘한다고 한다면 항상 못하는 게 거기 끼어 들고, 못한다고 한다면 잘하는 게 끼어 들고 이렇게 때문에 붙어 안 나오.

그러니 공부하는 여러분이 잘 생각해서 아주 근원적으로 들어가서 내마음을 파헤쳐 본다면 수억 겁 광년을 거치면서 우리가, 지수화풍도 우리에게 당장 없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공기주머니에서 사는 것은 물주머니에서 사는 거와 같습니다. 물에서 사는 생동물 모두가 그냥 물주머니에서 산다고 한다면 그 물로 인해서 공기가 되니까, 우리도 이 물주머니에서 사는 거와 뭐가 다를까? 뭐든지 거기에서 이탈한다면 다른 병고가 일어나게끔 돼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라는 자체는 수십 억 마리의 마음도 내 한마음에 다 따라 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따라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 하나 쓰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예전에 누가 꿈을 꿔다고 가서 물어보니까 '아, 잘 먹겠다.' 이러기에, 다른 친구가 꿈을 안 꾸고도 그런 꿈을 꿔다고 꿈

입니다. 그런데 이보다도 더 무한량으로 쓸 수 있고, 모든 것을 자유스럽게 자유자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여러분한테 주어져 있다는 얘깁니다. 사대 성인들과 깨달은 분들 모두가 다, 역대를 거치면서 발견한 거고 연구한 거고 실천한 것입니다.

사람에게 불성이 있다 할지라도 지혜가 풍부해야 들이고 내는 데 조금도 손색이 없고 또 못가지 않게 할 수 있는데, 바로 그런 지혜도 주어져 있습니다. 제일 문제는 지금 정글을 넘어야 되는 겁니다. 사느냐 죽느냐, 이 중(중)세계에서 승진을 하느냐 하천세계로 좌천이 되느냐 하는 판국이지요. 좌천이 되면 세세생생 헛바퀴 돌듯 그냥 이 모습 저 모습으로 끌려 다니면서 고(苦)를 면치 못해요. 자기뿐만

고 할 수 있나? 했던 겁니다. 자동적으로 돌아가면서 말도 뜻도 행도 바뀌면서 돌아가는데 탄 놈이 또 있습니까? 그러니 일체 만법도 각자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벌어진 겁니다. 한 놈이 그렇게 일체 만법을 들이고 낸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 벌어진 것을 용도에 따라서 들이고 내는 데 손색이 없다고 봅시다. 그대로니까, 그 한 놈이 누구입니까? 그 한 놈이 바로 우주를 싸고 여여하게 돌아가는 그 자체입니다. 우주의 근본이 인간 마음의 근본에 직결돼 있다고 얘기했죠? 일체 만물은 연결돼서 바로 공생(共生)으로서, 공용(共用)으로서, 공식화(共食化)하고 있으니 그것이 바로 가설이 돼 있는 것이라고요. 각자 마음마다 가설이 돼 있

래서 그것은 바로 별성들이요, 모체(母體)가 전체를 담아 가지고 있는 그 자체는 육성입니다. 이름을 지어서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성이 따로 있고 별성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게 움직거릴 때, 위장에서 움직거릴 때 내가 움직거렸다고 하겠습니까? 간장에서 움직거려야 내가 움직거렸다고 하겠습니까, 소장입니까, 대장입니까? 전체가 나 아닙니까 없는 겁니다. 한 군데서만 파업을 일으킨다 하더라도 그것을 막는 건데 파업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대립이 되니까. 이견 대립이 돼서 될 일이 아닙니다.

어떤 애고라든가 영계성·유전성·세균성·입보성 모두가 과거에 어떻게

애길 하나까 '너는 매를 진탕 맞겠다.' 그랬죠. 그런데 정말로 매를 진탕 맞고는 '그런 꿈을 꾸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매를 맞게 됐습니까?' 하고 가서 반문을 하니 '그렇게 하려고 꾸민 것도 꿈이 아니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니까. 꿈에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나 하더라도 돌로 보지 않고, 귀신이 닦친다, 애고가 닦친다, 유전성이 닦친다 하더라도 '허허! 너와 내가 돌이 아닌데 무슨 그런 일이 있겠는가.' 하고 한생각에 돌려놓으세요. 돌이 아니라면 모든 게 그냥 하나로 돼 버려요, 흔적도 없이, 불에 어떤 것을 넣든 타 버리고 물이 증발되듯이 말입니다.

어떠한 게 닦치면 관습에 의해서 '이런 거는 안 되고, 이런 거는 되고.' 이런 게 있죠? 여러분들 많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사람이 살아나는데, 여지껏 살아온 관습에 의해서 이견 못하고 하고 가 항상 따르게 마련이죠. 진짜로 믿고 들어가는데 하고 못하고가 어딴습니까? 내 생명이 그냥 이 자리에서 앉아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허허!' 할 뿐이죠. 내가 돌로 본다면 온 것이 있고 갈 것이 있지만 돌로 보지 않는다면 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갈 것도 없죠. 인간이 모두 가지고 있는 이 미묘한 법으로써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자유스럽게 삶의 보람을 느끼면서 살 수 있게 합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좋지 말고 정진해라, 철저히 망상을 끊으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나는 어떠한 생각을 했느냐 하면 망상을 끊기 이전에 사람이 생각을 내지 못하면 목석이 되지 않나? 아니, 생각을 자꾸자꾸 내야 그게 발전을 하는 거지 어떻게 생각을 망상이라고 방편으로 이름을 지었을까 하는 의식이 낫단 말입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을 하더라도 내가 안 하려면 안 하고 하려면 하는 거지,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꾸 나오는 거지, 그 자리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 자리에다 그냥 내버려두지, 그걸 망상이야 뭐라고 끊으려고 애를 쓰니 그게 칼로 물 베기지 어떻게 끊어질까. 무슨 물체입니까, 그게 끊어지지.

어떠한 물체라면 칼로 끊으면 끊어질 수 있지만 이 마음이라는 것은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칼로 물 베기야 끊을 수 있습니다. 그걸 끊으라는 게 아니라 공부할 수 있는 재료로 삼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졸음이 오는 것도 거기서 나오는 건데 그냥 편안하게 자게 내버려두지, 뭐 그렇게 말이 많습니까? 아, 자다가 깬 때도 있겠지 내내 잠니까? 내내 자도 할 수 없는 거고 내내 깨어 있어도 할 수 없는 거지, 그거를 성화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정글을 넘어설 수 있겠습니까? 자든지 깨든지 시공을 초월해서, 바쁘게 서둘러 말고 차근차근히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런 형상이 돼야만 이 자리를 과감하게 넘어설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의 질문 좀 받아 볼까요?

▲질문: 우선 새해 첫 질문의 기회를 갖게 되어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진정한 보살 정신은 모름지기 모든 중생이 성불한 다음에야 마지막으로 자신도 성불하겠다는 발원에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모든 중생의 성불을 기약하시며 몸을 나누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중생들은 수억 겁의 삶에 지쳐서 평소 많은 노력을 기울여도 성불하기란 요원하고 자신의 성품을 보는 일조차도 기대하기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 까닭에 중생들은 자연히 제불보살의 가피를 빌게 되는데, 이와 같이 경성성불을 바라면서 불보살의 가피를 빌는 것도 타락신앙이라 하여 배척할 일 인지요? 가르침 주시지 바랍니다.

▲스님: 그것도 타락이지요. 왜냐하면, 문수가 병란안을 왔을 때 우마림 거사가 '중생들의 병이 다 나아야 내 병이 낫겠소라.' 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회사를 하더라도 재료를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물건을 다 만들어서 시중에 내놔야만 사람들이에게도 도움을 줄 수가